‘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번영과 불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로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영조 쇼쥬신인의 ‘용상(湧祥)의 송(誦)’이 마음에 울려옵니다.
“현(顯)에서 밀(密)로 들어가 올바르게 수행하여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올바르게 길을 관철하라” 현(顯)이란 경(經)과 의례이며, 밀(密)은 그 말이나 형태를 초월한 진리를 이끌어내 는 것입니다. 자리(自利)에서 이타(利他)로, 만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비추는 보살도를 관철해갑시다.

무심無心하면 자비慈悲는 연꽃으로 변한다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첫 걸음로 밝아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가 부서져서 마군이가 되는것요, 참으로 무심하다면 악마의 지독한 화살은 자비스러운 보살의 부드러운 연꽃으로 변할것입니다. 불자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이일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오직 하심 뿐일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은 자신을 낮춰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갑오년 한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올랐습니다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조화(造化)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연기론(緣起論)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무궁무진한 화엄의 세계를 열어 진정한 행복과 환희심을 느낄수 있습니다. 올해 임인년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퇴치는 물론 경제 · 교육 · 부동산 · 문화 등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질적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부처님의 순일한 정신과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맑고 밝은 지혜와 무량한 복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을 여의고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희망찬 임인년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새해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혼돈의 나날 속에 우리 삶의 현장은 살아 있는 경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인년 한 해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밝은 새해를 열어 갑시다.

새해 해조음을 타고 밀려오는 광명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묘법연화경의 대광명입니다. 거짓 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을 씻으십시오. 높이 높이 오르십시오. 무명을 깨고 나오십시오. 묘법의 평등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이웃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탐욕도 성냄도 벗어 놓고 증오하지 말며, 안색은 화평하게 하고 아상을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만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청정불심과 자긍심으로 극복하는 한해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호랑이처럼 기운찬 임인년의 새해 찬란한 태양이 동녘에서 떠올랐습니다. 불자님 가정 소망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한 불심과 자긍심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위엄과 용맹함, 지혜를 수호하는 영물입니다. 용감무쌍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또 한 번 닥쳐온 시련과 현실을 슬기롭게 부딪쳐 상생 도약하는 기쁨의 광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쌍차이변雙遮二邊이 쌍조이제雙照二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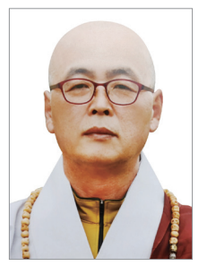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각몽 혜승



구래부동여여불(舊來不動如如佛)이니 심기명정에 쌍차이변하고 정입중도에 쌍조이제니라(心旣明淨에 雙遮二邊하고 正入中道에 雙照二諦니라.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추느니라. 현실세계란 전체가 상대적 모순이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어둠과 밝음 등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이 모순과 대립이 바로 투쟁의 세계이니 투쟁의 세계는 우리 종교인의 참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의 세계는 모든 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함이니, 양변을 다 버리면 쌍차이변(雙遮二邊)의 세계가 쌍조이제(雙照二諦)가 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여 정법안정의 지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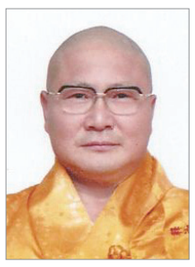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국난극복의 저력과 중심축은 불교가 해법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두 손 모아 바라옵니다. 더불어 전국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투어 행복 가득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 일류 종교로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교인들이 오직 신심과 용맹 정진으로 일체의 단합과 화합으로 솔선수범하여 정법 안정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더 큰 한국불교 발전을 다 함께 열어갑시다.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心自本來心(심자본래심)
本心 非有法 (본심비유법)
有法有本心 (유법유본심)
悲心非有法 (비심비유법)

마음은 본래가 마음이라서 본래의 마음은 법이 있음이 아니며, 법이 있으니 본래의 마음이 있음이요 마음이 아니면 법 또한 있음도 아니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의면 달리 법도 부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임인년(壬寅年)에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냅시다.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뿌린 씨앗

한국불교 현조계종
종정 무비 도현



如來立敎에 其法有三하니
一曰戒律이요 二曰禪定이며
三曰智慧이니 然이나 非戒면
無以生定이요 三法이 相資하야
一不可缺而 皆稱爲學者라

여래께서 가르침을 세움에 그 법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계율이라 말씀함이요 둘은 선정이라 말씀하였으며 셋은 지혜라 말씀함이니, 그러나 계율이 아니면 선정이 생길 수 없음이요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생길 수 없음이니라. 세 가지 법이 서로 도와서 하나도 결핍됨이 없어서 다 학문이라는 것이 된다고 일컬음이라.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불교의 중흥을 위해 애쓰신 대덕스님들과 불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역사적으로 늘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 마다 항상 나라와 국민의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도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과 함께 대동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들 생명 그대로의 모습

(사)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물질은 그 자신의 성질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성질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나고, 마음으로 아품을 생각하면 아품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영화(瑛畵)의 스크린에 장사(壯士)를 비추면 장사가 나타나고 병자(病者)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나건만, 영화의 필름은 본디 해맑아서 장사도 병자도 없는 것을 다만 그 해맑은 필름 위를 덮은 인화액(印畵液)으로된 여러 가지 모양, 장사, 혹은 병자를 나타냄과 같다. 만약 영사기에 인화액의 작용없는 빈(空) 필림을 걸어봐라. 그때 그 스크린에 떠오르는 건 장사도, 병자도 아닌 오직 광명일 뿐, 그 광명은 너희들 생명 그대로의 모습과 같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갈 것을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이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나도다.
구름이 같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 간 자취도 없도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 오니, 탐 진 취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탈진어복脫珍御服 착폐구의着弊垢衣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2022 임인년 흑호랑이 용맹한 새해 우주본래법신불,위신력의 광명력으로 이 나라에 큰 번영을 이루어지이다. 탈진어복(脫珍御服)하고 착폐구의(着弊垢衣)니라. 보배의 옷을 벗어놓고 때 묻은 옷을 입었구나. 진어복이란? 천자가 입는 보배 옷이며, 상근기 사람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폐구의란? 어리석은자 입는 남루한 더러운 옷이며, 중하근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부처님께서 성도하신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법적멸(諸法寂滅)은 불가언설(不可言說)이라. 아불설법(我不說法)하고 질입열반(疾入涅 槃)이니라. 모든법의 적멸상은 말로서 설명 할 수 없으며. 여래는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가는 것이 나으리라.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19로가 종식되고 전국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싸우고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름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습니다. 본래성불의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정진합시다!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동건 법경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의 가정과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를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다툼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웃음과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서로 양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불우 이웃을 위해 모두 정진합시다. 내 가족, 이웃, 사회, 국가와 민족 인류의 평화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인격을 완성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및 불자 가정마다 항상 가득하시기 서원합니다.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어 모든 국민과 우리 불자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기원해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어려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는 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해의 원년이 되어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은 고요할 줄 알아야 한다

(사)국제불교승가회 대광불교조계종
종정 덕산



사슴을 쫓는 자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 하노니 탐욕이 극에 이르면 곧 밝음이 어두워 지니라
큰 상인은 상품을 과장하게 진열치 않으며 어진 사람은 능함이 많아도 그 재주를 나타내지 않는다. 고로 사람이 고요할 줄 알면 곧 평화를 얻는 지름길이다. 요즈음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이 널리 쓰여지는데 그것은 어둡고 사사롭고 한 옛것을 과감히 깨뜨리리다 보면 드디어 밝고 어질고 바른 것이 들어난다는 말입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인심, 무너져가는 윤리도덕, 불안한 사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태양이나 동력에 의해 얻어지는 빛이 아니라 나의 빛으로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寸陰을 아껴 成佛합시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혜승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길은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길입니다. 만일 금생에서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후생에 이르러서 끝없이 한탄하리니라.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백천만겁 미진수를 지내어왔네!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이 몸 금생에 제도하여 닦지 못한다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는가 사람몸 받았을 때 촌음을 아껴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惜寸陰歲不延 이라 촌음을 아껴 쓰라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길은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길입니다. 만일 금생에서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후생에 이르러서 끝없이 한탄하리니라.

大衆은 圓融和合의 回向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윤



歸依 三寶 하옵고
壬寅年 한 해도
더욱 精進하며
大衆은 圓融和合의 回向
있으시길 發願합니다.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했으랴.